

증례

汗出變化過程을 통한 太陰人 慢性咳嗽 治驗例

이경로·이상기·송정모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A Case Study of Chronic Cough of Taeumin through the Change Process of Sweating

Lee Kyung-Ro, Lee Sang-Gi, Song Jung-Mo

Dep.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osuk Univ.

1. Objectives

In this study, it is experienced that the process of sweating is important in chronic cough of Taeumin. In this case report, the patient has been improved through reaction of sweating improvement. In 『Dongyi Soose Bowon』, The process of sweating change is described in detail. "Hamkeylhae" is similar to chronic cough in 『Dongyi Soose Bowon』, it is cough that is hard to spit. The chronic cough of Taeumin is related to the pathology of Liver and Lung, sweating condition is also related to condition of Lung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o the study for the process of sweating is needed.

2. Methods

One patient diagnosed as chronic cough was practiced with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We observed sweating change process during treatment.

3. Results

As sweating condition improved, chronic cough also decreased, but not improved, not decreased.

4. Conclusions

So treating of Taeumin's chronic cough is closely connected with sweating change process.

Key Words: Taeumin, Sweating change process, Chronic cough, Hamkeylhae

I. 緒論

李濟馬(1837-1900)는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論」¹에서 “太陰人 傷寒表證 寒厥 四五日後 發熱者重證也 此證 發熱 其汗 必自髮際 而始通於額上...”에서 傷寒表證이 해결되는 과정에, 땀이 나는 것과의 연관성을 말하였다. 또한, 太陰人 長感病이 病解되는 과정에 땀이 나는 구체적 인 부위를 짚어가며 설명하고 있는데, “...數日後

發熱而眉稜通汗 數日後 發熱而額上通汗 數日後 發熱而脣頤通汗 數日後 發熱而胸臆通汗也...”에 잘 나타나고 있다.

사상인의 생리, 병리기전을 논하면서, 少陰人과 少陽人은 水穀寒熱之氣病症으로 설명한 반면, 太陰人과 太陽人은 呼吸氣液之氣病證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 太陰人 체질이 ‘汗出’과의 연관성이 깊음을 알 수 있고, 또한, 「四象人辨證論」¹의 少陰人과 太陰人의 감별에서 “太陰人 虛汗則完實也 少陰人 虛汗則大病也”라 하여 太陰人은 땀을 잘 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원에 ‘咳嗽’을 主所로 내원한 太陰人 환

접수일 2004년 10월 30일; 승인일 2004년 12월 3일
교신저자 : 이경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890-1 이경로한의원
Tel : +82-63-229-3066, Fax : +82-63-229-3069
E-mail : tigerkr@hanmail.net

자 1예의 치료과정에 ‘汗’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에, 증례 보고하고자 한다.

II. 症 例

1. 환자 : 박 00. 남. 34세

(초진2003.2.21)

2. 주소증

咳嗽, 呼吸不便, 咯痰, 胸悶, 慢性疲勞, 睡眠不快.

3. 부증

消化不良, 惡心, 嘔逆感, 細大便不爽快, 皮膚粗面, 手足掌乾燥.

4. 발병일

2000년 봄, 기관지천식 Dx.

5. 진단명

기관지천식(양방), 알레르기성 비염

6. 치료기간: 2003.2.21 - 2003.5.1

7. 과거력

자주 감기 걸리고 천식으로 전변되어 양약으로 치료경력.

8. 현병력

2000년 봄부터 대학병원 기관지 천식 약을 복용해 오던 중 별로 호전되지 않아 6개월 전부터 약물투여량을 증가했으나, 오히려 복용하기 힘들어져 복용을 중단하고 한방 치료코자 본원에 내원.

9. 체질진단

1) 용모사기

눈빛이 흐리고 얼굴빛이 검붉으며 약간 부어있는 피곤한 모습. 말소리 둔탁하고 걸음걸이가 둔해 보임

2) 체형기상

보통체격에 약간 비만, 허리가 두툽하고, 목덜미가 약간 굽으며, 어깨가 두툽하나 허리에 비해 좁

Table 1. Change of Sweating and Coughing

기간	땀의 변화*	해수의 변화**	기타 증상 변화	처방
2/21-3/14	+	+++++	面色이 다소 밝아짐, 鼻炎여전, 舌苔白厚, 沈細無力, 청진음 썩썩거림, 身寒	熱多寒少湯加味(杏仁, 貝母, 桑白皮, 紫菀, 款冬花, 麥門, 天門)
3/15-3/24	+	+++++	面色 밝아짐 호전 중, 소화불량, 청진음 썩썩거림은 여전, 身寒에서 身少溫으로의 변화	上同+ 蓮子肉, 山藥, 石菖蒲
3/25-4/10	++	++++	面色 호전 중, 청진음의 호전, 舌苔白厚, 大便秘-細, 身溫해짐	鹿茸大造湯加減(去茸加葛根8g, 桔梗, 元肉)
4/11-4/18	+++	+++	鼻炎호전, 氣力상승, 운동시 폐활량 다소 호전, 舌苔薄白, 沈細有力, 大便爽快, 齒齧舌호전, 체중다소증가, 身溫	새벽咳嗽時비상약(葛根解肌湯)소량씩투여(四象新編)
4/19-5/1	++++	++	咯痰黃色으로 시원하게 뱉어짐, 鼻炎鼻漏 소실.	
5/2-5/29	+++++	+	咯痰줄고 시원하게 뱉어짐, 鼻炎鼻漏 없고 몸이 가벼워짐을 느끼기 시작	운동요법강화(조깅, 등산 등)
5/30-6/3	+++	++	, 咽喉癢痒感, 鼻塞, 운동잘안했음, 하안콧물에서노란콧물로변함, 身少寒-身少溫	葛根解肌湯加味(비상약)3일분투여
6/28	+++++	+	2-3일전 過飲으로 咯痰, 흰콧물, 재채기조금발생, 大便大量爽快, 身溫輕快	葛根解肌湯加味(비상약)2일분투여.
2004년 3월 특별한 이상 느끼지 않음				

* 땀의 변화 기호표시 예 (환자집 앞 호수가 둘레300m를 5바퀴 돌때 기준)

+++++ : 안면부 전체, 가슴, 등줄기에 상쾌한 땀, 굽고, 투명, 오래지속.

++++ : 이마, 뺨, 코잔 등, 목덜미 주위에 약간 상쾌한땀, 굽고, 투명, 곧 사라짐.

+++ : 이마, 뺨등에 약간끈적한 땀, 가늘고, 반투명, 곧 없어지고 少惡寒.

++ : 이마에 극소량 땀방울 맺힘, 끈적끈적, 상쾌감 없음. 皮膚寒氣殘存.

+ : 전혀 안남. 皮膚寒氣乾燥.

** 해수 변화 기호표시 예(일상적 생활과 수면 시 관찰)

+++++ : 수시로 기침, 거칠고 가슴들림, 쇠금소리, 간헐적 호흡곤란, 수면 방해 심함 (은 가족 수면방해)

++++ :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 연속적 기침, 약간 거칠고, 웅장하다. 호흡곤란약화, 수면방해70%정도.

+++ : 짧게 기침, 소리 작다, 매끄럽다. 수면방해 30%정도.

++ : 현저히 기침 감소, 10초 이내 멈춤, 수면 방해10%정도.

+ : 기침이 전혀 없거나, 1-2회 기침 후 멈춤. 수면방해 없음.

아 보임. 복부 늑골 각은 둔각

3) 성질재간

차분하고, 느린 편. 참는 성격이나 간혹 폭발하기도 함. 업무처리는 책임감 있게 잘함. 테니스활동 이외에는 별로 밖으로 나가지 않음.

4) 素症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딱딱. 脈沈細弱, 舌質少紅, 舌邊齒齦舌, 苔白厚. 기상 시 口內 텁텁함 호소.

5) 기타소견

금연중. 커피 하루3잔, 少食, 無汗(운동중에도), 內熱. 평균 주 3일의 飲酒

6) 체질판정(QSCC II) : 太陰人

10. 치료경과

1) 초진시의 소견

食事良好, 消化良好하나 가끔 가스차고 더부룩함(최근 스트레스 과다), 大便細不爽快, 睡眠不良(因咳嗽), 舌苔白厚 舌邊齒齦 舌質紫少紅, 脈沈細無力, 無汗, 口渴飲水, 口內텁텁함. 手掌乾燥, 청진음 싹싹거림, 好肉食, 알리지 천식 및 비염으로 현재 양방병원 약 복용 중. 不好運動(테니스 좋아했으나, 가슴 답답해서 중단).

2) 치료기간 및 상태변화

Table 1. 참조

III. 考察

『東醫寶鑑』²에서 ‘咳嗽’를 살펴보면, 인체가 風, 寒, 濕, 등의 外邪에 感한 경우나, 五臟六腑의 內傷病이 肺에 傳變되어, 氣가 上逆해서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咳’는 無痰而有聲한 것으로 肺氣가 損傷되어 不清한 때문이고, ‘嗽’는 無聲而有痰한 것으로 脾濕이 動하여 痰이 된 所致로 보고 있다. 『內經』³에서는, “...五氣所病 ... 肺爲咳...”라하고 있고, 『東醫壽世保元』 「太陽人篇」⁴에서 “肝肺는 呼吸氣液之門戶”라 하여 咳嗽의 문제를 巨視的인 呼吸次元에서 ‘肝’과 ‘肺’장부의 중요한 역할을 지적하면서, 太陰人과 太陽人체질의 생리, 병리를 論하는 根幹이 되고 있다. 또한 ‘結咳’를 정의하고, 少陰人과 太陰人의 ‘結咳’를 구별하고 있다. “힘써서 강하게 기침하여 담을 분출하고자 하나, 잘나오지 않거나 혹은 시원하지 않게 뱉어지는 것을 結咳라고 하고, 少陰人 ‘胸結咳’와

비교하여 太陰人은 ‘領結咳’라 하고 있어”, 太陰人의 咳嗽는 上焦(偏小之臟, 肺小)의 위약점을 근본으로 咳嗽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汗’을 ‘人身津液所化’라 하여 『內經』과 『景岳全書』 등⁵은 “汗爲心之液”, “汗則爲人身之津液... 陽加於陰 謂之汗”, “汗也者 合陽氣 陰精蒸化而出者也”이라 하여 汗이 人體津液代謝의 產物로 陽氣가 津液을 蒸化하여 體表로 出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東醫寶鑑』²에서는 病理的인 發汗狀態를 여러 가지로 기술하고 있는데, 시간과 양상에 따라 自汗, 盜汗으로 나누고, 부위에 따라 頭汗, 心汗, 手足汗, 陰汗으로 나누고, 성상에 따라 絕汗, 柔汗, 無汗, 血汗, 黃汗으로 나누고, 병인병기에 따라 淚風症과 亡陽證으로 나누어보고 있다.

『東醫壽世保元』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⁴에서 ‘寒厥證’을 설명하며, 汗出 樣相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汗出 數次後에 轉變되는 과정을 기술하여 병의 진행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더 나아가 汗出의 ‘굵기’와 ‘길게 혹은 짧게 머물렀다 환입하는가’에 따라 快汗과 非快汗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李濟馬는 太陰人에 있어서 “觀汗法”이라는 특별한 관찰법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東醫寶鑑』²에서는 ‘汗出凶證’을 기술하고 있는데, “傷寒熱病에 汗出이 如油, 如貫珠, 頭汗, 如珠不流, 동시에 喘不休등은 不治내지는 陽脫, 死證”이라 하고 있다. 처방에는 寒厥 4일에 無汗者는 重症이고, 寒厥 5일에 無汗者는 險症이라 하여 마땅히 熊膽散 或 寒多熱少湯 加 鱗鱗5-7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다. 『東醫壽世保元甲午本』⁴에는 葛根解肌湯에 調下熊膽3分 하고 桔梗生脈散을 낮에 사용하고 熊膽이 없을 때는 升麻開腦湯을 2-3服하라고 하였다.

『太陰人肝受熱裡熱病論』⁴에서는 汗出에 대한 언급이 약간 나오는데, 太陰人 裡熱病 條文에 “... 目疼 鼻乾 潮汗 閉澀 滿渴 譫語...”에 葛根解肌湯, 黑奴丸을 사용하고 “...余發一秘方 名 二聖救苦丸 大黃4兩 豬牙皂角2兩... 一服即汗 一汗即愈 稟壯者 百發百中...”이라 하여 太陰人裡熱病證에서 裡熱이 풀어지는 과정에 땀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⁴에서는 “...太陰之藥 宜通外而不宜固中... 少陰之藥 宜溫裡而不宜

淸腸”이라 하여 太陰人의 肝과 肺의 氣液之氣病症에서 氣液의 吸取하는 능력은 強하고 呼散하는 능력은 항상 不足한 체질적 특성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치료약물을 ‘通外’하는 약물을 사용하고 ‘肺藥’이라 명명하고 있다.

『東武遺稿』⁴에서의 藥性도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과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偏小之臟을 중심으로 비슷한 효능을 발휘하는 本草를 제시하며, 肺肝의 開闔과 脾腎의 出納하고 관련된 ‘通寒升降’에서 “牛黃, 熊膽, 麝香, 麻黃, 杏仁, 山藥, 桔梗, 黃芩, 皂角子”등과 같이 ‘通力’이 강한 약물들은, 闔氣가 많고 開氣가 적어 발생한 肺病을 치료하는 ‘肺藥’으로 묶고 있다.

또한 ‘馨臭液味’로 본초의 氣味厚薄에 따라 氣之薄하고 馨이 풍부한 麥門冬, 五味子, 石菖蒲 등과 같은 본초는 ‘肺’로 들어가는 肺藥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太陰人의 ‘肝大肺小’한 특성으로 偏小之臟인 ‘肺’를 補하고 呼散之氣가 부족한(呼散之氣가 保命之主) 체질적 약점을 ‘肺藥’을 사용하여 ‘汗液通暢’으로 肺陽升氣시켜 咳嗽를 멈추게 하는 효과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보인다.

증례 환자에서는 ‘汗出’의 변화가 전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마, 뺨, 목덜미 주위, 가슴, 등줄기, 전신에 땀이 차츰 나기 시작하면서 기침의 횟수나 강도가 줄어 들어감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타의 신체적인 증상들도 호전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太陰人燥熱證으로 진단하여 熱多寒少湯加味方을 사용하였고, 燥熱證이 심화된 ‘陰血耗竭’단계의 鹿茸大造湯加味方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太陰人 ‘觀汗法’이 등장한 곳은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의 ‘寒厥證’인데, 어떻게 裏病證 처방을 사용해서 호전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전반적인 환자상태의 素證이 裏病證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體質的 病證을 잡아주는 방향에서 기본처방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병증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땀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생각되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이 太陰人에게 있어서 ‘咳嗽’는 ‘汗出’의 변화에 따라서 치료의 경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⁴에서도 ‘張仲景의 寒厥이 미약할 때는 곧 스스로 낫는다고 함은 珍重하지 못하고 虛妄된 말이라고 하여, 汗의 미약하고 용맹함으로 病의 輕重을 占칠 것에 당부하고 있다.’

IV. 結論

이상으로 태음인 만성해수의 치료과정에 ‘汗出’의 변화과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太陰人의 ‘咳嗽’는 肺와 肝의 生理, 病理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汗出’은 太陰人의 질병치료과정을 점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太陰人의 保命之主인 ‘呼散之氣’를 강화하기 위해 ‘通外’하고 ‘汗液通暢’시키는 ‘肺藥’의 약물 위주로 선택되고 있다. 끝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해수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병증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參考文獻

1. 전국한외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집문당, 서울, 2004:705, 729.
2. 許俊. 東醫寶鑑. 대성문화사, 서울, 1992: 258-259, 105-110.
3. 양유걸 편저. 黃帝內經素問靈樞譯解. 정보사, 서울, 1980:207.
4. 권건혁. 李濟馬全書. 반룡, 서울, 2002: 109-114, 132, 234, 308, 375-376.
5. 왕신화 편저. 중국역대의론선. 일증사, 서울, 1983:430-432.